

나주시, '나주형 뉴딜' 속도... 32개 사업 1172억 투입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제적 대응 디지털·그린·안전망 3개 축 구성 일자리 연계 국고건의 사업 진행

전남 나주시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과 연계한 '나주형 뉴딜사업'을 발굴해 주목된다.

나주시는 14일 '나주형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발굴한 32개 사업에 1172억 원을 투입하기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해당 발굴사업은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의 3개축으로 이뤄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국고건의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나주형 뉴딜 사업'은 신규사업 22건, 계속사업 10건 등 총 32건이다. 이 사업들은 나주시 17개 부서에서



나주형 한국판뉴딜 발굴사업 보고회.

신규 사업으로 발굴했거나 앞서 추진 중인 사업들로서 국비 633억원, 도비 156억원, 시비 295억원, 민간투자 8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분야별로 '디지털 뉴딜'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독거노인·장애인·응급 안전 안심서비스, 방과 후 아동을 위한 맞춤형 학습콘텐츠 스마트기기 지원. 나주시 핵심유적 디지털 복

원, 전남 VR·AR제작거점센터 구축,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모바일 헬스케어 등 10개 사업에 173억원을 투입한다.

'그린 뉴딜'은 아동문화 공간 그린 리모델링, 중대형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 평가센터 구축, 학교주변 자연안심 옐로우 가든 조성, 나주목 초록길 조성,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확대, 스마트관광 관리 인프라 구축,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등 16개 사업에 954억원이 소요된다.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찾아가는 마을장터 운영, 취약계층 안전지킴이 스마트워치 지원 등 '안전망 강화' 분야 6개 사업에도 43억 원을 투입한다.

나주시는 나주형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남도,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국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형 뉴딜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흐름과 국고 확보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주재원 확보가 어려운 만큼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강성대 기자 ksd1008@metroseoul.co.kr



담양군청 전경

담양군 비대면 직거래 판매 실시

담양군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 맞아 담양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한 '2020 추석맞이 비대면 직거래 판매'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거래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 택배 주문판매로 방식을 변경, 7일부터 강남구와 용산구, 서울도시농업박람회를 통해 수도권 소비자 대상으로 택배 주문판매를 시작했다.

비대면 직거래에서는 햅쌀을 비롯해 각종 장류와 쌀강정, 약과, 쌀엿, 참기름, 죽제품 등 다양한 품목을 유통단계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바로 연결해 시중가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판매한다.

/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전남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착공 부산시, 비대면 민원 서비스 강화

산·학·연·관 협력 농산업 미래 육성 창업 보육시설·실증단지 등 건립

전남도는 미래 첨단농업을 이끌어 갈 스마트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을 착공했다고 14일 밝혔다.

고흥군 도덕면에 들어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전문인력 육성과 함께 관련 산·학·연·관이 협력해 기술혁신과 검증, 농작물의 환경·생육 데이터 수집·분석 등 농산업의 미래를 이끌기 위해 조성한다.

지난해 3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총 사업비 1100억원을 들여 33.3ha 규모로 오는 2022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주요 핵심시설은 청년창업 보육시설과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및 지원센터 등이다.

보육시설은 스마트팜 취·창업에 희망한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실습교육



전남도청 전경

을 제공하며, 우수 교육생에게는 3년간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자가경영의 기회가 주어진다.

실증단지와 지원센터에서는 스마트팜 관련 연구개발(R&D) 및 정보통신 기술(ICT) 기자재 실증 등이 이뤄진다.

시설 중 청년창업 보육시설은 현재 순천대에 위탁 교육 중인 교육생의 실습 지원을 위해 내년 4월까지 조성하며, 나머지 시설은 오는 2021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한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정부24 연동, 민원 온라인 서비스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비대면 민원서비스의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시의 비대면·비접촉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하고 특히 시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 시 및 구·군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방문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산시 홈페이지(부산민원120)에서는 지난 9일부터 '정부24'와 연동해 자격증·면허증 재발급(6종) 및 여권 관련 민원(10종)의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시의 비대면·비접촉 서비스는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담은 민원·제안 온라인 대표창구 '부산민원120' ▲전화 한 통으로 부산시의 공공증을 신속·정확·전질하게 상담하는 '120바로콜센터' ▲시와 16개 구·군의 민원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부산시 통합민원서비스 QR코드' ▲방문 전 민원 대기현황을 확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여권민원 대기현황 실시간 확인' ▲부산시에서 최초로 시행한 '여권대기 순번 알림톡 발송' 등이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광주북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추진

국·시비 31억4000만원 확보

광주시 북구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시비 등 총 3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마을진입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사업과 누리길 조성, 경관사업 등의 환경문화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북구는 이번 공모에서 생활기반사업으로 도로 확장·포장 2건, 저수지 보수·보강 1건 환경문화사업으로 누



광주북구청사 전경.

리길 2건 등 총 5개의 사업이 선정됐다.

특히 환경문화사업은 '제4수원지 주변 누리길 조성사업'과 '평촌반디마을 누리길 조성사업'으로 사업 대상지가 충효동과 인접해있어 무등산권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광주=강성대 기자

영양군, 제3회 추경예산 136억 확정

코로나 영향 최소화 현안 중점 편성

경북 영양군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등 136억원 규모의 제3회 추경예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양군 재정 규모는 기정 예산 3374억 원 보다 4.03% 늘어난 3510억 원이 됐다.

일반회계 3230억 원, 특별회계 280억 원이다. 추경안은 코로나19 영향 최소화 및 조기 극복을 위한 긴급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영양군은 장기간 경기침체와 교부세 삭감으로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연내 집행이 불가한 각종 시설사업,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운 행사·축제성 경비, 국외여비 등을 전액 삭감했다.

추경예산에는 소하천 정비사업 14억 원, 청기토곡지방상수도 확장공사 10억 원, 공공하수도 관리 3억 원, 남대기 경로당 신축사업 2억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 4억 원 등이 포함됐다.

석보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3억 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10억 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5억 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6억 원, 농업재해 복구지원 2억 원,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1억 원 등도 반영했다.

코로나19 피해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6억 원, 소규모 주민취업사업 12억 원, 소규모 주민편의 사업 6억 원 등도 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2019년 전남GT 대회 현장

/전남도

영암군 '2020 전남GT 대회' 개최

국내 최대 규모 모터스포츠 축제인 '2020 전남GT(Grand Touring) 대회'가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무관중으로 개최된다.

'2020 전남GT'는 모터스포츠와 자동차 복합문화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가 매년 개최하는 종합 스피드 축제, 자동차와 모터사이클, 드리프트, 오프로드 등 7개 종목에 230여대가 참여할 예정이다.

메인 클래스인 '전남 내구'를 비롯해 '슈퍼6000', 넥센스피드레이싱 'GT 300', 1천cc 모터사이클 '슈퍼바이크'까지 국내 정상급 모터스포츠 레이스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